수술없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호텔 신라분원 7월 3일 O

[기자수첩] 법조비리… 침묵하는 대법원

▲ 이항수 사회부기자

"경제적 이유로 사표를 냈고 우연히 시기가 몰렸을 뿐입니다."

작년에 군산지원에 근무했던 판사 3명이 동시에 사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1일, 대법원 간부들은 "아무 일도 아니다"며 녹음기를 켜듯 같은 말만 했다.

10여 일이 지나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사직한 판사들이 구속된 업자를 풀어주고, 향응을 받았다', '골프와 여행 접대를 받았다', '공짜로 업자의 아파트에 살았고, 자동차도 공짜로 탔다'는 내용들이었다.

기자들이 취재를 했지만 허탕만 쳤다. 관련 의혹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들은 "모른다" "아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석방된 업자의 판결문,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확인을 요구하자 "접대골프 2번이 문제가 됐는데, 사표를 낸다고 해서 다른 의혹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 언론의 확인을 통해 대법원이 3주 동안 거짓말을 해왔고 의혹들이 일부 사실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구속됐다가 금세 풀려난 업자는 군산지원에서 수십 건의 경매를 받았고, 여러 판사들이 업자 형제가 운영하는 고급 술집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업자 석방과 경매에 판사들과의 '유착'이 작용했다면 신종(新種) 법조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현지 검찰은 진상 파악을 하면서도 본격 수사를 할지를 놓고 대검찰청만 쳐다보고 있다.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은 까마득한 선배인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눈치만 본다. 판사들 사표를 받으면서 수사의뢰 등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던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판사 4명이 연루된 브로커 김홍수씨의 법조비리 사건이 공개된 뒤에도 대법원은 말이 없다. 이래서야 이 대법원장이 작년 9월 취임하면서 약속한 '국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이항수 사회부 hangsu@chosun.com BLOG
입력 : 2006.07.14 18:58 11'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